

## 다양한 교육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홍옥련 \_ 경남 함안 태영목장



길가에는 코스모스 한들거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드높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겠지요.

3박 4일 (8.31~9.3)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낙농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집을 비우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세 아이와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을 얻어 세 분의 언니들과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승호 협회장님과 이정희 분과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2기 교육생들의 3박 4일간의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이 펼쳐졌다.

첫날 첫 수업은 교육생간의 상호소통관계 만들기, 관계리더쉽 시간, 체질로 보는 스타일검사, 유형별 장점과 단점, 그림으로 보는 행동유형, 나와의 의사소통 등... 내가 어느 유형의 스타일에 속하는지 내 몸이 어디가 약한지 장단점을 알 수 있어

서 참 신기했다. 다소 생소한 교육이어서 신선하고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고 교육생간의 어색하던 분위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다음시간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한 목장분석시간, 먼저 작성해간 자기목장 점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다. 나 역시 목장에 대해 몇 가지는 알면서도 소홀하게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 차차 고쳐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저녁땀 야외에서 삼겹살파티를 하면서 어색하던 교육생간의 모습은 없고 여성낙농인이라는 하나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면서 끈끈한 정으로 목장이야기,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야기를 하면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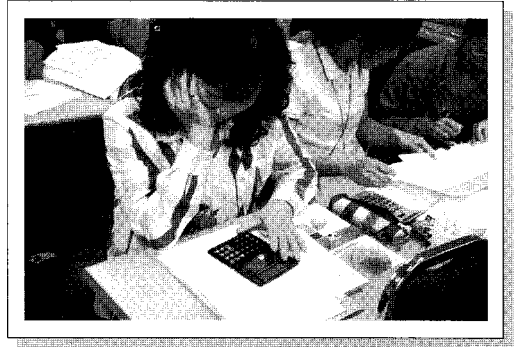
둘째 날, 아침 일찍 작유를 하던 습관이 있어 새벽 4시가 좀 넘으니까 잠이 오지 않아 같은 방 동생들과 리조트 주위를 1시간 정도 걸었더니 기



분이 상쾌하고 아침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식사를 하고는 먼저 웃음치료 특강을 받았다. 여러 번 교육을 받았어도 또 새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웃을 일이 자주 없겠지만 그래도 억지웃음이라도 자꾸 웃으면 면역체계가 형성되고 스트레스도 관리되고 사회성도 향상된다고... 또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자꾸 웃으면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며 열강을 하시던 강사님이 생각난다.



다음시간은 이번 교육의 주 핵심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

자산, 자본, 수익, 조수익 등 경제용어 설명들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설명하려니 또 어렵고... 하지만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은 교육시간임에도 강사님들께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중간 중간 준비하셔서 보여주셨다. 어떨 때는 유머러스하고 어떨 때는 가슴 찡한 감동으로... 강사님의 열강도 좋았고 우리 교육생들의 열공도 좋았고 분위기는 요새 애들 말로 '짱' 이었다.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셋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강사님과 우리교육생들은 산에 산책을 하고 하루를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은 오늘의 특별강의 "낙농과 클래식"의 만남".

클래식음악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른다 해도 음악을 들으면서 저 가슴 밑에서부터 뭔가가 꿈틀거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모두가 성악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어 갔다.

그때 "아! 지금도 뜨거운 열정이 내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열정을 낙농을 하는데 많이 쏟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수업, '경영회계 발표와 목장경영회계실습'.

모두들 생소한 경제용어 하나하나에 힘들었지만 그 열기는 어느 강의실보다도 후끈했다. 또한 세무교육에 청첩장과 부고장도 잘 챙기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저녁식사 시간 후에 교육생간의 마지막 인적교류가 있었는데 유익하고 즐겁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마지막 밤이 깊어지면서 헤어짐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아침에 간단한 맨발산책을 하고 기념사진과 수료식을 마치면서 작별을 아쉬워했다. 이제는 장부관리 요령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협회장님 말씀처럼 "내 목장은 내가 지



킨다"는 신념으로 배운 교육을 잘 활용해서 내실 있는 목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시간에 쫓겨 모든 영수증과 사료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다 챙겨 갔는데도 자기목장 장부경영실습을 한번 못 해본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수료식을 끝내고 우리 경남팀들은 여기까지 (충북 수안보) 올라왔으니 여주에 있는 목장 두 군데를 더 탐방하고 내려가자고 뜻을 모았다.

가다가 여주 IC에서 내려 여성분과 부위원장님께 맛있는 점심식사 너무 감사하게 대접받고 또 덕 목장에도 가서 사양관리 하시는 것도 배우고 뜨거운 격려의 말씀도 들었다. 나 자신도 여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더 큰 자극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뜨거운 눈물이 되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결코 잊지 않을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다.

또 체험목장(은아 목장)에도 갔었는데 아름다운 목장탐방을 할 수 있어 너무 좋고 감사했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몇 번 봤지만 직접 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맘과 정성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분들 같은 여성선배분들이 선두가 되어서 우리 젊은 여성 낙농인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고 든든하고 용기가 되었다. 여주에서 출발해서 언니들 다모셔드리고 집에 도착하니 23:00시 정도가 되었는데도 하나도 피곤함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았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극제가 되고 또한 교육을 받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위대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신 협회장님, 또 모든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낙농인들이 좀 더 다양하고 나은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세연과장님도 3박 4일 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헤어짐의 아쉬움도 컸지만 2기 교육생 분들을 만나면서 목장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2기 동기생 언니, 친구, 아우 그리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